

## 공여자의 자녀들로서 항상 주는 자가 되어라.

오늘 자비의 대양은 자비의 대양 마스터인 그의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신봉자들은 밥다다와 가장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의 자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모든 종교에 속하는 영혼들은 밥다다와 가장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달라고 청한다. “믿음”이라고 통칭되는 기안과 요가의 측면들이 모든 종교에서 언급된다. 하지만 한 측면은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다. 영혼들 모두 각자의 언어로 자비를 원하는데 그것을 축복이라고도 부른다. 마지막 생에도 너희의 신봉자들은 모두 너희 영혼들에게서 자비심 가득한 한 순간의 드리시티를 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계제도 자비를 좀 베풀어주소서!” 한다. 자비는 모든 종교의 주된 속성이라고 불린다. 종교를 믿지만 자비롭지 않거나 자비의 눈길이 (다야 드리시티) 없는 영혼은 신앙이 깊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독실하다는 것은 자비심이 있다는 뜻이다. 오늘 밥다다는 너희가 얼마나 자비롭고 온정적이 되었는지 보고 있었다.

너희 브라민 영혼들은 모두 너희 자신을 본래의 영원한 고대의 종교에 속하는 고귀한 영혼이라 여긴다. 이는 너희가 스스로를 다르마트마 (독실하고 정의로운 영혼)라고 간주한다는 뜻이다. 오 다르마트마들아, 너희 자신과 브라민 가족과 세상 모든 영혼들에 대해 자비와 온정의 느낌과 시선을 지니는 것이 곧 너희 모두의 으뜸가는 종교, 즉 너희의 주된 다르마가 되게 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비와 온정의 느낌을 모든 이에게 한결같이 가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등수대로인지 여부를 스스로 물어봐라. 사람은 누구에 대해 자비와 온정의 느낌을 가지겠느냐? 성취가 부족하고 이런저런 것에 영향 받는 나약한 영혼들은 남들에게서 자비와 온정을 원한다. 그런 영혼들이 비록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여자의 자녀인 너희들은 좋은 염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를 준다. 너희가 어떤 영혼들과 접촉하게 되든, 그들이 무지하든 깨달음을 얻었든, 너희는 그들 모두에게 하루 내내 한결같이 이 시선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다른 유형의 눈길도 역시 가지느냐? 어떤 유형의 산스카르들을 가진 영혼이든 너희가 그들에게 자비와 온정의 느낌과 시선을 가지면 돌이 물로 바뀔 것이다. 반대하던 영혼들이 제 위치에 안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성질 탓에 충돌하던 (타카르) 영혼들은 신상 (타쿠르)이 될 것이다. 화의 불은 요가의 불이 되어 여러 생의 극심한 카르마의 부채가 1초에 정리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누군가가 너희를 아무리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도 그는 너희를 수용하고 열싸안는 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토대는 너희들의 자비의 느낌이다. 그런 상황, 그런 때는 자비의 느낌이 필요하다. 적시에 자비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자비의 대양 마스터”라 불리겠느냐? 자비의 느낌을 지닌 자들은 변함없이 무체이며 악덕 없고 에고가 없을 것이다, 즉 생각으로는 무체이고, 말에는 악덕이 없고, 행위에는 사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영혼들은 자비롭고 온정적이라 불린다. 오, 넘쳐흐르는 자비의 보물창고를 가진 영혼들아, 너희는 영혼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자비심을 한 방울 줄 수 없느냐? 흘러 넘치는 너희의 보물창고에서 한 방울을 줘라, 그러면 브라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다 끝날 것이다. 너희들 모두의 원래의 영원하고 불멸하는 산스카르들은 공여자의 산스카르다. 신인은 주는 이다. 합류시대에 너희는 공여자 마스터다. 반 사이클 동안 너희는 주는 신인들이다. 동시대 이후로도 너희의 살아있지 않은 형상은 주는 신인들의 이미지다. 그러므로 전체 사이클 내내 너희의 산스카르는 공여자의 산스카르다. 오, 공여자의 산스카르로 가득한 영혼들아, 너희는 왜 필요한 때 공여자가 되지 않느냐? 공여자의 자녀들은 뭔가를 원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아무개가 주면 그때 나도 주겠어”라고 하는 것은 신인이 아니고, 가져가는 자다. 너희는 어떤 유형의 영혼이냐? 주는 자이나, 취하는 자이나?

오, 욕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혼들아, 일시적인 욕망으로 인해 신인이 되지 못하고 취하는 자가 되지는 마라. 계속해서 줘라! 너희가 주는 것의 수를 세지 마라! “나는 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 많이 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세는 것은 공여자의 산스카르가 아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세지 않는다. 보물창고는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세고 있느냐? 황금시대엔 아무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세지 않는다. 태양왕조의 왕족은 공여자 마스터들이다. “나는 이만큼 줬다, 나는 이만큼 했다”, 이런 흥정이 거기엔 없을 것이다. 누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그는 그 정도만큼 가득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왕가에 속한다는 것은 공여자의 집안에 속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산스카르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한다. 언제 그것들로 가득해지려느냐? 황금시대엔?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 산스카르들로 너희 자신을

채워야 한다. 너희는 심지어 여기서도 아버지와 흥정한다. 너희는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심지어 너희들끼리도 너희는 흥정을 많이 한다. 황제들이 되어라! 공여자의 자녀들인, 공여자가 되어라!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사람이 두 번 말하기에 나는 네 번 말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네 번이나 했는데 나는 두 번밖에 안 했다.” 공여자의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세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주든 주지 않든 너희는 그저 계속 줘라. 자비의 느낌과 눈길을 가진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롭고 인정 많은 영혼들아, 공여자가 되어라! 이해하느냐? 밥다다에게는 너희 모든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밥다다는 너희가 하루 내내 얼마나 자비롭고 온정적이고 또 너희가 주기를 원하기보다는 얼마나 받기를 원하는지 게임을 지켜본다. 듣기뿐 아니라 볼 수도 있도록 너희가 비디오를 설치하듯이 밥다다에게는 너희들 각자에 대한 TV세트가 있다. 그는 언제든 원할 때마다 그것을 켤 수 있다.

저 TV는 봉사의 수단이고 이 TV는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의 활동에 대해 아는 수단이다. 어느 경우든 저 편의시설들은 마지막에 모두 다 끝날 것이다. 마지막에는 저 비디오들은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TV세트가 아닌, 의지력의 세트가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 편의시설들을 만드는 데 과학자들은 시간, 에너지, 돈을 써왔으며, 그들의 노력이 아버지를 위한 봉사에 쓰이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봉사하기 좋은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온 자녀들의 노력을 보며 기쁘다. 그러나 그들(과학자)도 역시 자녀들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들이 만든 발명품들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어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는 그것에서 성공을 달성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오직 일시적이라 해도 어쨌든 그래도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는 TV세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다. 앗차.

이 나라와 외국의 모든 자녀들은 그 편의시설을 통해서 보고 들을 것이다. 밥다다는 마두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깊은 사랑 속에 앉아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너희가 국내나 해외 어딘가에 있겠지만 너희들 모두 미묘한 형태로는 마두반의 주민들이다. 각자의 미묘한 형태로 기억의 화신인 그 모든 영혼들에게 밥다다는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고 있다. 밥다다는 단일한 집회가 아닌, 2중의 집회를 보고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신체의 집회, 다른 하나는 미묘한 집회다. 너희들 모두의 기억이 여기에 도달하고 있다. 앗차, 너희들 모두에게서 온 편지에는 답장이 단 하나뿐이다.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을 수백만 배로 기억한다. 너희가 올 때까지 날짜를 세듯이 아버지도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의 미덕들의 염주를 돌린다. 너희 자녀들 모두 밥다다를 만날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남을 축하하려고 생각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밥다다는 암릿 벨라에 특별히 만남을 축하함으로써 응답한다. 그는 또 계속해서 봉사할 특별한 생각들을 준다. 앗차.

끊임없이 자비와 온정의 느낌을 가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줄 뿐, 받으려는 바람은 결코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욕망에 대한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도 무지한 단계를 가지는 자들에게, 왕가의 산스카르를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 밥다다가 교사들을 만나심.

너희 모두 밥다다에게 특별히 협조하는 영혼들이다. 사랑하는 자들만이 협조적일 수 있다. 너희가 남들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 그들은 너희에게 협조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고 협조하는 자라는 뜻이다. 너희는 함께 살고 서로 동반하며 마지막에 함께 집에 돌아갈 자들이다. 이렇게 너희는 세 가지 모두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함께 살아야 하고 지금 이때는 서로 동반해주고 나중에는 집에 함께 돌아가야 한다. 첫 두 가지가 괜찮으면 세 번째의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 너희 모두 도구 영혼들이다. 너희가 서로 동행하고 함께 머물 때 너희를 보는 남들은 더 큰 열성과 열의를 가질 것이다. 너희 각자는 많은 수의 남들을 위한 도구다. “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말고, 바바가 너희를 도구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가져라. “나”에 대한 의식은 이제 끝났다. “나” 대신 “나의 바바”가 있게 해라.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라, “바바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바바가 이렇게 하셨다”라 해라. 그렇게 하고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쉬운

지 봐라! “바바, 바바”라는 말이 입에서 더 많이 나올수록 너희는 더 많이 남들이 바바에게 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각자 바바에게 속하겠다는 관심 하나뿐이다. 오직 그래야만 너희가 남들이 바바에게 속하려는 관심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가진 관심이 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밥다다는 나이 어린 쿠마리들의 용기와 버림을 보는 것이 기쁘다. 나이든 자들은 버림을 채택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닌데, 그 모든 걸 버리기 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 어린 너희들은 처음부터 지각이 있었다. 더 어릴수록 너희는 더 지각 있다!

###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구자라트:** 너희들은 제 자신을 위대한 영혼, 마하비르라 여기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고 무엇이 되었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너희의 의식은 저속할 수 없다. 저속한 의식을 초월해 머물러라. 끊임없이 천사로 저 위에서 계속 날아다녀라. 천사들은 내려오지 않는다, 즉 흠에 발을 딛지 않는다. 저속한 의식이란 흠으로 만들어진 몸을 의식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천사가 되었거늘 너희가 어찌 몸이라는 흠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사는 날아다니는 자라는 뜻이다. 이처럼 너희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이고 새장에 갇힌 새들은 아니지 않느냐? 반 사이클 동안 너희는 새장에 갇혀 있었다. 이제 너희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되었다, 즉 자유로워졌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유인은 더 이상 너희를 끌어내릴 수 없다. 너희가 아래에 머물러있으면 포수들이 너희를 사냥할 테지만 위에서 늘 날아만 다니면 누구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이 아니냐? 새장은 이제 치워지지 않았느냐? 새장이 아무리 보기에 좋다 한들 여전히 속박이다. 알로키한 관계들 역시 금으로 된 새장일 수 있다. 그것에 갇히지 마라! 자유는 자유다! 한결같이 굴레에서 자유로운 자들만이 삶속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 앗차.

**텔리:** 텔리에서는 아직 사업가들이 나오지 않았다. 사업가는 수십만 명을 전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가 한 명이 여러 명과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그가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만 메시지를 들어도 아주 많은 수가 나올 것이다. 이것도 역시 사업이다, 사업가는 주식을 많이 받는다. 사업가에게는 봉사할 좋은 기회가 많다. 너희가 다시 올 때까지 이제는 사업가들 그룹을 만들어라. 앗차.

**세바다리(봉사자):** 야기야 (희생의 불)에 봉사하는 자들은 야기야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심지어 지금도 이 봉사에 대한 기념물이 종교적인 장소 여러 곳에서 아직까지도 존속한다. 종교적인 장소들에서 수행되는 봉사는 나중에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그러하므로 이 위대한, 이 살아있는 희생의 불의 봉사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중요성이 부여되겠느냐? 너희는 단지 봉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양분 많은 그 결실을 몇 백만 배로 먹고 있다. 부자는 늘 자양분 많은 결실을 먹고 있는 이라고 언급된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달(녹두 수프)과 로티(튀긴 자파티)밖에 없다고 일컬어진다. 부유한 사람은 자양분 많은 결실을 먹고 있는 자다. 봉사자는 자양분 많은 결실을 먹는 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으로 고귀해졌다! 너희에게는 매 발걸음마다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소득이 2중으로 생긴다. “생각을 통해서”란 너희가 기억 속에 머물며 모든 일을 다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2중의 소득이다. 너희는 각자 얼마나 버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 봉사의 보물창고는 넘쳐흐르고 있다. 거대한 희생의 불이란 봉사의 보물창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 그것에는 한계도 없고 결코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일이 끝났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 의아해하지 마라. 봉사의 보물창고는 항상 넘쳐흐르고 있다. 보물창고는 무한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희는 모든 보물들로 가득해지는 복권에 당첨되었다. 너희는 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이 복권에서도 너희가 수억에 당첨될지, 십만에 당첨될지, 수천이나 수백에 당첨될지는 너희들에게 달렸다. 이 복권은 너희가 수억에도 당첨될 만큼 아주 크다.

밥다다도 역시 여기에 봉사자로 온다. 세계의 전능한 권위자의 첫째 형태는 세계 봉사자의 형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자녀들에 대한 칭송과 같다. 너희들은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봉사자들이 아니냐? 봉사에는 장애가 있을 것 아니냐? 분위기나 동료들에게 어떤 유형의 장애 또는 어떤 유형의 게으름이 있다면 그럴 경우엔 그 봉사가 적절한 봉사가 아니다. 봉사가 망쳐졌다. 어떤 유형의

장애에도 사로잡히지 마라.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봉사에 중요성이 부여된다. 너희 생각에조차 장애가 전혀 없게 해라. 그렇게 한결같은 봉사자는 결코 어떤 무리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낭비적인 집단에 절대로 붙들리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봉사에서 끊임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에 성공이 없을 것이다.

**축 복:** 승리하는 보석이 되어 의심의 생각을 모두 끝내는,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라.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미리부터 회의를 품지 마라. 패배가 있는 것은 너희의 지각이 의심으로 가득할 때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 승리는 내가 타고난 권리다.”라고 생각해라. 그런 권리를 갖고서 행위를 행함으로써 너희는 승리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획득할 것이다, 즉 성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승리하는 보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난 잘 모르겠어”라는 말이 지식으로 충만한 마스터인 자의 입에서 결코 나오지 않게 해라.

**슬로건:** 자비의 느낌은 도구라는 의식이 쉽게 나올 수 있게 한다.

\*\*\* 음 샨티 O M S H A N T I \*\*\*